

Theme 3 대학생의 정체성 찾기

흔히들 '대학은 죽었다'라는 말을 한다. 대학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로서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대학을 공략하기 위한 상업주의 상품을 소비하는 곳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대학에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대학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본다

□ 사회로의 진출마저 가로막힌 신규실업자의 현실

□ 한국현대사에서 대학생이 가졌던 상징적 의미와 역할

취업을 향한 기다림 대답은 어디에...

정부차원 관심과 대책 절실

'실업자 양성소' '예비실업자'라는 단어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IMF체제가 사회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학 역시 IMF 한파에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학교 취업률은 서울캠퍼스가 64.2%, 수원캠퍼스는 42.9%로 이는 작년 대비 20% 정도 낮은 수치이다. 타 대학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서울대 철학과와 경영학과 17명 가운데 대학원 과 군대에 입학한 10명을 제외한 7명 중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단 1명뿐이다. 올해 41명이 졸업한 단국대 사회학과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 대학원에 진학한 3명과 군에 입대한 1명을 제외한 30명이 실업자 대열에 들어선 셈이다. 지난해 졸업생 36명중 12명이 취업한 것에 비하면 취업률이 절반 이하로 폭 떨어졌 것이다. 일간 신문지상에는 'IMF시대, 봄비는 대학 캠퍼스'라든지 '갈 곳 없는 졸업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들의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처럼 졸업생이 대학마다 늘어감에 따라 '캠퍼스 포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대학이 일종의 '실업자 임시 대기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시험 때가 다가와야 열람실이 미어 터지고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도서관 썰물 현상'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 열람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은 말 그대로 '전쟁'이다. 이렇게 졸업생이 학교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서울의 H대학에서는 "식당 이용자가 작년 3000여명에서 올해는 4000-4500명으로 늘어나 점심 시간에는 교직원들이 나와 정리를 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또 어느 졸업생은 "예전 같으면 취직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속수무책 학교에 잘 나오지 못했으나 요즘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에 나와 어울린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바라 보는 우리학교 최지연(생물 96)양은 "선배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단지 남의 일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도 닥칠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답답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했다. 취업 예정자들은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를 따지기보다는 당장 그들에게 붙여진 '고학력 실업자'라는 딱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둘 뿐이다. 현재 대학 졸업생 중 미취업자 수가 40만 명을 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학은 단지 그들에게 '예비실업자'를 양성하는 거대한 집단일 뿐이다. 이러한 현상 타개를 위해 지난 4월 27일 서울대 총학생회(회장 장병도)에서는 '예비실업자 선언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히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 대책 마련 및 실업 급여 지급'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대졸 예정자의 졸업 유예, 취업 훈련 등 정부가 밝힌 신규 실업 대책은 신규 실업 문제를 본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대학생들의 취업 불안과 실업자 양산 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신규 실업자문제는 실업자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 2배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고학력 실업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현일 기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재학생 과연 그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가

'경쟁'에 숨겨진 기성논리의 함정

송근호
<청년문화론 강사>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의 존재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어떤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가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보자면,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사회가 재생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식의 축적 및 그 지식을 운용하는 인적 자원의 배출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도모된 개발 논리에 따라 고등교육을 상대적으로 중시하였고 대학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고교 기술 관료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결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대학의 본질은 '학문의 전당', '진리의 추구', 그 토대로서의 '자율성' 등의 말들이 잘 버무려진 가상적인 외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피가 단순히 외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적 상황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 밖에서나, 대학을 나오지 않은 일반인에게 있어 '대학'은 골치 아프고 치열한 경쟁이 지배적인 사회적 삶과 유리된 채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대학생'은 전체 사회에서 가장 자유로운 인간들에게 부여되는 명칭 줌으로 간주되어 왔다. 대학생 자신도 대학이라는 공간을 고교 시절의 통제된 삶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자력'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곳 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그러한 자력의 정당성은 '학문을 통해 진리를 추구할 자유'라는 명분에 의해 보장받는다. 그런데 역설적인 점은 대학과 대학생들이 누리는 자유는 대학으로 하여금 비록 추상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주류적인 가치 체계로부터 자율적이며 사회의 지배적 가치체계에 때로는 반(反)하기도 하는 새로운 가치 모델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이다. 만약 대학생이 '특별한 존재'로 생각될 수 있다면 바로 이 점에서 일 것이다.

대학이 사회적 재생산 체계에 깊숙히 개입함으로써 체제 유지의 기능과 함께 그 체제에 반하는 경향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대학생의 정체성은 양자의 상관관계의 변화(혹은 세력관계의 변화) 가운데서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70-80년대와 지금의 대학 및 대학문화의 차이는 바로 이 양자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70-80년대의 대학문화는 이른바 '민중지향성'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의 개발 독재하에서 피폐한 민중의 삶과 정치적 사회적 모순의 심화는 대학생의 대안적 사고가 민중 지향성을 띠도록 했다. 그 경향은 80년대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났고 민중적 지식인, 혹은 대학생 자신이 민중으로 계급 전환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물론 개인의 사회적 성취를 무시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대개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전자의 경향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대학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와 같은 민중 지향성을 가진 대학생들의 대안적 삶의 모색은 대학생들을 특별한 존재로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90년대 이후의 대학과 대학문화는 민중 지향성을 상실한 채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실'이라는 말이 '아직은' 불행하다면 그 이념이 더이상 우세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대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사고나 행위 중 하나일 뿐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상실'과 사실상 동일하다.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필자가 보기에는 '경쟁력 강화'이다. 흔히들 다양성과 개성의 옹호가 오늘날의 대학생의 성격을 규정 짓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논리일 뿐이다. 개인의 삶이 사회와 결부되면서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나가 당면 문제가 되자 그 이외의 가치는 단지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항목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돼버렸다. 여기서 다양성과 개성의 존중은 결국 그러한 재생산 구조에의 편입을 순조롭게 해주는 논리로 이용된다. 물론 가시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작용하는 취향이나 기호, 생활 방식 등에서의 '자율성'과 '개성'은 강력한 옹호되지만 비가시적이고 은밀하게 작용하는 가치영역에서는 기성 사회의 논리인 '경쟁력 강화론'에 쉽게 동화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쉽게 논박하기 어

려가지 사고나 행위 중 하나일 뿐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상실'과 사실상 동일하다.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필자가 보기에는 '경쟁력 강화'이다. 흔히들 다양성과 개성의 옹호가 오늘날의 대학생의 성격을 규정 짓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논리일 뿐이다. 개인의 삶이 사회와 결부되면서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나가 당면 문제가 되자 그 이외의 가치는 단지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항목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돼버렸다. 여기서 다양성과 개성의 존중은 결국 그러한 재생산 구조에의 편입을 순조롭게 해주는 논리로 이용된다. 물론 가시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작용하는 취향이나 기호, 생활 방식 등에서의 '자율성'과 '개성'은 강력한 옹호되지만 비가시적이고 은밀하게 작용하는 가치영역에서는 기성 사회의 논리인 '경쟁력 강화론'에 쉽게 동화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쉽게 논박하기 어

려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결과 질식되는 것은 포괄적인 사회적 변화를 포함하는 대안적인 삶의 모색이라는 대학의 또다른 사회적 기능이다. 90년대까지 이 기능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주류적 경향으로서라기 보다는 개개인의 '깨달음'에 의존하는 것이다. 사회의 이데올로기적인 수사('나의 경쟁력이나 나의 경쟁력이다'는 식의)를 쉽게 공유함으로써, 자유로운 공간에서만 뿔어져 나올 수 있는 창조력은 고갈되고 어떻게 기성 체제에 쉽게 편입될 수 있는가하는 이른바 '실존적 고민'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 속에서 대학의 문화는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지 못하며 재생산도 할 수 없는 불모의 것이 되고 만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제 한번쯤 대학생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기도 하다. 다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네덜란드의 몇몇 대학교(13개라고 한다)에는 '과학상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그 지역의 주민, 특히 지식과 재정이 빈약한 사회적 약자인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그 지역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 70-80년대 민중적 대학문화를 상징하는 풍물패

문제, 예컨대 환경, 공중 보건, 사회 복지, 노동 조건, 주거, 소비자 문제 등을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대학내 학생자치 단체이다. 과학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영역 및 분야에 걸쳐 지역 사회와 대학을 연결하는 고리로 형성된 '상점'(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단지 친근감이 가는 용어로 선택되었을 뿐이다)은 '인간과 사회를 위한 과학 및 지식'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실천하는 동아리인 셈이다. '과학상점'을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그것을 우리나라 대학에도 마련해보자는 식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가 아니다. 위의 예는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 특수성의 구체적 형태는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 '과학상점'의 예는, '사회적 주류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의무라는 역설이 통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대학생이 과연 그러한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지는, 또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보는 것은 90년대 후반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또 다른 의무가 아닐까?

문제, 예컨대 환경, 공중 보건, 사회 복지, 노동 조건, 주거, 소비자 문제 등을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대학내 학생자치 단체이다. 과학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영역 및 분야에 걸쳐 지역 사회와 대학을 연결하는 고리로 형성된 '상점'(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단지 친근감이 가는 용어로 선택되었을 뿐이다)은 '인간과 사회를 위한 과학 및 지식'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실천하는 동아리인 셈이다. '과학상점'을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그것을 우리나라 대학에도 마련해보자는 식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가 아니다. 위의 예는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 특수성의 구체적 형태는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 '과학상점'의 예는, '사회적 주류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의무라는 역설이 통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대학생이 과연 그러한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지는, 또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보는 것은 90년대 후반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또 다른 의무가 아닐까?

외국어전문교육기관



국제교육원은 세계화·국제화로 경희 50주년을 빛내겠습니다

● KOREAN LANGUAGE PROGRAM

Period	Summer School		July 13 - August 7, 1998
	Fall Semester		September 1 - December 18, 1998
Courses Offered	Winter School		January 4 - January 29, 1999
	Korean Language		Reading Comprehension, Composition, Grammar, Conversation, Listening Comprehension
Class Hours	Korean Culture		Korean Politics, Economics, Etiquette, Literature, Music, Art, Tae-Kwon Do etc.
	Summer School / Winter School		• Korean Language : 4 weeks per term 3 hours a day, 5 days a week • Korean Culture : 4-6 hours a week
Features	Fall Semester		• Korean Language : 16 weeks per term 3 hours a day, 5 days a week • Korean Culture : 4-6 hours a week
	Admission screening (three copies of 2x3cm size photos)		Tuition Payment
Admission Procedure	Issue a letter of admission (if a D-4 visa is needed)		Take a Placement test (written & oral)
	Contact		IIE(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 82-2-961-0081 ~ 2, FAX : 82-2-959-9018 Homepage : http://www.kyunghee.ac.kr / E-mail : iie@nms.kyunghee.ac.kr

● 제2차 외국어 강좌안내 (5월 6일 개강)

과목	강좌개강	강좌요일	강사	모집인원	수강료	강의실
영어(A)	07:00 - 07:50	월 - 금	Native Speaker	16명	16만원	201
영어(B)	08:00 - 08:50	월 - 금		16명	16만원	201
영어(C)	18:00 - 18:50	월 - 금		16명	16만원	201
영어(D)	19:00 - 19:50	월 - 금		16명	16만원	201
영어(E)	07:00 - 07:50	월 - 금		16명	16만원	202
영어(F)	08:00 - 08:50	월 - 금	Native Speaker	16명	16만원	202
영어(G)	18:00 - 18:50	월 - 금		16명	16만원	202
영어(H)	19:00 - 19:50	월 - 금		16명	16만원	202
영어(I)	08:00 - 08:50	월 - 금		16명	16만원	203
영어(J)	18:00 - 18:50	월 - 금		16명	16만원	203
영어(K)	08:00 - 08:50	월 - 금	박영재	50명	10만원	303
영어(L)	09:00 - 09:50	월 - 금		50명	10만원	303
영어(M)	18:00 - 19:00	월 - 금		50명	10만원	303
영어(N)	07:00 - 07:50	월 - 금		40명	10만원	102
영어(O)	08:00 - 08:50	월 - 금		40명	10만원	102
영어(P)	17:00 - 17:50	월 - 금	박준호	40명	10만원	102
영어(Q)	18:00 - 18:50	월 - 금		40명	10만원	102
영어(R)	19:00 - 19:50	월 - 금		40명	10만원	102
영어(S)	08:00 - 08:50	월 - 금		40명	10만원	102
영어(T)	18:00 - 18:50	월 - 금		40명	10만원	102
영어(U)	08:00 - 08:50	월 - 금	이기환	50명	10만원	301
영어(V)	18:00 - 19:00	월 - 금		50명	10만원	301
영어(W)	07:00 - 07:50	월 - 금		30명	10만원	302
영어(X)	08:00 - 08:50	월 - 금		30명	10만원	302
영어(Y)	17:00 - 17:50	월 - 금		30명	10만원	302
영어(Z)	18:00 - 18:50	월 - 금	이유숙	30명	10만원	302
영어(AA)	19:00 - 19:50	월 - 금		30명	10만원	302
영어(AB)	07:00 - 07:50	월 - 금		30명	10만원	304
영어(AC)	08:00 - 08:50	월 - 금		30명	10만원	304
영어(AD)	17:00 - 17:50	월 - 금		30명	10만원	304
영어(AE)	18:00 - 18:50	월 - 금	이유숙	30명	10만원	304
영어(AF)	19:00 - 19:50	월 - 금		30명	10만원	304
영어(AG)	08:00 - 08:50	월 - 금		30명	10만원	305
영어(AH)	18:00 - 18:50	월 - 금		30명	10만원	305
영어(AI)	19:00 - 19:50	월 - 금		30명	10만원	306

● 미취업 대학졸업자를 위한 영어강좌 특별 프로그램

과목	강좌개강	강좌요일	강사	모집인원	수강료	강의실
영어(A)	09:00 - 11:50	월 - 금	박준호	00명	5만원	우후공고

◎ 등록접수처 : 국제교육원 1층 교학부 ☎(02)961-0081, 961-0082, FAX (02)959-9018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외국어전문교육기관)